

파견기간	1학기	<b>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b>	소 속	기계항공공학부
파견국가	독일		성 명	최지수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작성일	2023.02.14

## I. 개요

###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 언젠가 꼭 해외에 장기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비교적 쉽게 해외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초과학기였지만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2. 파견 지역/대학 선정 이유

- 우선 독일이 유럽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생활 물가가 저렴한 편이고 학생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공대가 유명한데, 아헨 공대의 경우 특히 기계공학 분야로 유명하고 학생 수도 많습니다. 학생 도시라는 특징 역시 아헨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 Aachen은 독일에서 서쪽에 있는 작은 지방으로 인구 25만명중 5만명이 대학생일 정도로 대학교가 도시에서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도시가 작기 때문에 웬만한 곳을 걸어서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 도시라는 특징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카페와 맛집이 있고 쾰른과 뒤셀도르프 등의 근교 대도시를 쉽게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 II. 출국 전 준비 사항

### 1. 비자 신청 절차

- 저는 독일에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Expatrio의 value package를 통해 슈페어 콘도와 보험 서류를 준비해갔습니다. 독일 입국 후 안멜둥이라는 거주 등록 절차를 먼저 해야 비자 테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아헨공대 학생의 경우 외국인청 말고도 학교 자체의 Super C라는 곳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을 경우 쉽게 승인을 해줍니다. 신청 후 수령까지 한달 반 가량 걸렸습니다. 안멜둥이 끝나는대로 바로 비자 테어민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글에 RWTH Residence permit이라고 검색하시면 링크가 포함된 학교 사이트가 나오니 그 곳에서 테어민 하시면 됩니다.

### 2. 기숙사

- 아헨은 매 학기 국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숙사는 아헨에서 관리하는 기숙사와 사설 기숙사가 있습니다. 사설 기숙사의 경우 보통 사이트나 메일로 신청하면 되지만 가격이 비싸고 아헨에서 관리하는 기숙사의 경우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헨공대 지원을 결심하신 직후 바로 기숙사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기 번호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도 받기 힘듭니다.

- 교환학생으로 합격한 이후 Quota Room이라는 기숙사 신청 메일을 받게 됩니다. 아헨에서 관리하는 기숙사 중 일부를 교환학생에게 지급합니다. 보통 교환학생이면 다 배정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마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Quota Room 신청 후 신청 확인 메일이 오는지 꼭 확인 하시고 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경우 WG라는 직방 같은 어플이나 사설 기숙사 또는 아헨 공대의 'My home is your castle' 이라는 리스트를 통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Housing 부서에 메일로 리스트를 요청하면 보내주십니다. 다른 곳으로 교환 간 아헨 공대 학생의 집을 내주는 일종의 전전세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집을 쉽게 구하는 것도 운이 좋은 편이고 다른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사설 기숙사와 WG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집을 못 구하셨을 경우 RWTH Housing 부서에 메일로 지속적으로 정보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3. 그 외

- 저는 N26이라는 카카오 뱅크같은 온라인 은행을 한국에서 미리 가입하고 갔습니다.
- 저의 경우 독일 입국 시 Adimission letter를 보여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교환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은 혹시 모르니 미리 다 프린트 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III. 학업 및 현지 생활

- 아헨 공대에서 제공하는 독일어 어학 수업이 있습니다. 개강 전에 한 달 간 진행되는 intensive 코스와 한 학기 내내 배우는 코스가 있습니다. 후자가 인기가 더 많아서 대부분 떨어지지만 저는 운 좋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 어학 코스는 유료입니다.
- 처음 등록을 할 때 200유로 정도의 tuition fee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Semester ticket 값이 포함됩니다.
- 기계과의 경우 학사에선 영어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사 이상의 수업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아헨공대의 도서관은 학생 수에 비해 협소하여 시험 기간에는 오픈 시간에 맞추어 줄을 서야 할 정도입니다. 저는 주로 목암이라는 한인학생회 건물 1층에서 공부했습니다.
- 마트 물가는 정말 저렴하지만 외식 물가는 비쌉니다. 외식을 할 경우 케밥을 즐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의 독일 마트는 모두 문을 닫으니 토요일에 미리 장을 봐야 합니다.
- Enrollment를 마치면 Semester ticke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아헨이 속한 NRW 주와 네덜란드 일부지역까지의 모든 교통 수단이 무료입니다. (고속열차 제외) 쾰른, 본, 뒤셀도르프 등 많은 곳을 잘 다녔습니다.
- 저는 Alditalk이라는 유심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금액을 꼭 탑업시켜 봐야 합니다.
- 아헨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3국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나라를

여행 다니기 쉽습니다. 쾰른과 뒤셀도르프에도 공항이 있어서 유럽 여행 다니기 편했습니다. 파리까지 가는 플릭스버스와 탈리스라는 기차가 있어서 저는 파리를 자주 갔었습니다.

- 학기 초에 체육 수업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인기있는 수업의 경우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고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배드민턴과 클라이밍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 독일 겨울의 날씨는 정말 흐리고 비도 자주 옵니다. 독일의 영양제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는 dm에서 영양제를 꼬박꼬박 사 먹었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리셨을 경우 Tedi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는 전기장판을 한국에서 챙겨갔지만 여기서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밥솥도 여기서 살 수 있으니 갖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전자제품의 경우 주로 Saturn이나 Mediamarkt라는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개강 전에 Welcome week라는 국제학생을 위한 OT와 이벤트 기간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다른 국제학생들을 많이 사귄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말고는 학교 내에선 다른 학생들과 딱히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아헨 내에 한식당도 많고 아시안마트도 많습니다. 당연히 한국 현지 가격보단 비싸지만 웬만한 식재료들은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뒤셀도르프에 하나로라는 큰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다와요라는 곳에서 한국 식재료를 택배로 시켜먹었습니다.
- 입국하고 안멜둥이라는 거주지 등록을 했으면 귀국 전에는 다시 압멜둥이라는 거주지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멜둥처럼 직접 청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메일로 압멜둥 신청 서류와 여권을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저는 독일에서 짐이 많아져서 한국으로 미리 택배를 보냈습니다. ‘독한배송’이라는 배송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DHL등으로 바로 보내는 것보다 저렴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8.5kg에 6만원정도의 금액으로 보냈습니다.

####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곳을 가봤고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초과학기에 무리해서 다녀오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환기간이 끝나가는 지금 후회 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즐겁고 안전한 교환 생활 즐기다 오시길 바랍니다!